

금주 미사 독서: 박민웅 프란체스코하비에르, 조은영 베다	<u>+ 지난주 우리의 정성</u>
다음 주 미사 독서: 김선영 마리아, 정나미 모니카	교무금 : \$ 320
금주 미사 복사: 김보미 로사	봉헌금 : 1 차 (\$234), 2 차(\$96)
다음 주 미사 복사: 최고은 소피아	감사헌금: 신부님 (\$100)
금주 미사 해설: 윤지희 데레사	-----
다음 주 미사 해설: 성인영 마리스텔라	합계 : \$750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강동현	봉헌봉사: 최고은 소피아
회 계: 한진 베드로, 황성필 요한	다음 주 봉헌봉사: 권민호 바오로
친교실 정리: 2 구역	
	* 매월 마지막 2 차헌금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2월 8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골프 모임	동계 휴식기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란 지난 주일인 연중 제3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 그런데 오늘 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잡혀간 이들이 해방되거나 눈먼 이들이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무언가를 기대했다가 되짜를 맞고 그분을 죽이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 가운데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에서여야 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민족이라서 은총을 더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렙타의 과부도, 시리아의 나아만도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연중 제 4 주일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 kccmwi@gmail.com

2013년 2월 2일

<제1독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1,4-5.17-19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12,31-13,13<또는 13,4-13>

화답송	◎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 의로움으로 저를 건져 구하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 ○ 이 몸 보호할 반석이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보루시옵니다. 저의 하느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 ○ 주 하느님, 당신은 저의 희망, 어릴 적부터 당신만을 믿었나이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나이다. 어미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옵니다. ◎ ○ 당신 의로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의 입은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
복 음 환 호 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기 미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21-30 그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네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해 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삼 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성가] 시작: 64 봉헌: 221 성체: 175 파견: 472



우리가 선택된 이유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 선택을 받아 특별한 보살핌과 은총을 받습니다. 하느님이 여러 민족들 중에서 유독 이스라엘만 뽑아서 총애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멸망시키기 위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그들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창세 12,3 참조)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별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상응한 응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응답이란 하느님만을 섬기면서 그분 뜻대로 서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다른 백성들을 참된 행복의 근원인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하느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불의와 폭력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 사람들도 완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면서도,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면서 그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집안이 평범하다는 이유로 그분의 비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적을 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전에는 못 믿겠다’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 ‘쓴소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쳐 놓고 이방인들이 하느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건을 거론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느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한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의 불신과 완고함 때문에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당당하게 전해야 하는 예언자의 소명(제 1 독서)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나자렛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충 때문에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하느님 백성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아들, 딸로 선택을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과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느님의 각별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이란 ‘믿음과 희망과 사랑’(제 2 독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의심과 회의, 낙담과 절망, 무관심과 이기심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느님을 굳건히 믿으면서 불굴의 희망을 간직하고 묵묵히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손희성 베네딕도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 공지사항

- 2013 년 사목위원 투표 안내
 - 투표 일시: 2 월 2 일 미사 후 (간단한 후보 소개 직후 투표)
 - 후보: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신자를 대상 (투표 용지 확인)
 - 투표 용지에 총 5 명의 이름에 표시
 - 총 9 명의 사목위원을 다득표 순으로 선출 (전례 담당 사목위원 자체 선출)
- 설 합동 위령미사 안내 (2 월 9 일 주일 미사 간)
 - 구정을 맞이하여(2 월 10 일) 조상님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 봉헌 신청 방법 : 다음 주 금요일(2 월 8 일) 전 까지 사목회장(부회장)에게 신청
- 다음 주 미사 (2 월 9 일) 때 유아세례가 있겠습니다.
- 2 월 독서, 간식 및 청소는 2 구역입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 시에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장소는 매주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조은영 베다 (beda0528@hotmail.com) 자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성교우 기도모임 (계속)>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 나누고 하는 시간으로 꾸려질 계획이며, 첫 모임은 오는 **2 월 8 일 (금) 저녁 8 시 사제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적정리 (계속)>

우리 공동체의 교적 정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당 임구에 비치된 교적 양식을 작성하셔서 교적을 담당하는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MS Word file) 작성하신 후 메일로 (jkhong2350@yahoo.com)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난 3 년안에 교적 파일을 작성하신 가정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시 교적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적 정리와 관련하여 제안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홍진국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모집 (계속)>

성가대에서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 리드비나 (lrdw@naver.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 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